



2면

코로나19 위기극복  
민간·문화·종교분야 공동성명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음 11월 3일) 제26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본격 가동

### 창의적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창업 공간 '뚝딱365' 개소... 道, 전문 메이커 육성 선도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구상한 제품을 만들어보고,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 창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작업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16일 송하진 도지사, 송지용 도의회 의장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조지훈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개소식을 갖고, 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전문 메이커 육성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는 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창작과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형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 메이커스페이스는 젊은층 유망인구가 많은 전북대 인근에 동지를 터 청년들의 관심 유발 등 전북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문랩으로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하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해 탄소융합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메이커 공간이다.

전북도는 올해 2월부터 메이커스페이스 일반형과 협의 및 논의과정을 거쳐 전문형에 필요한 구축 장비, 시설, 인력구성 협의와 도내 주요 기관들과 전문메이커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 이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일반형 전문메이커 서포터즈단,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팩토리, 전문 시제품 제작업체 등 도내 유관기관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9월에는 도내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 중인 10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북메이커스페이스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메이커 활동 촉진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공간 운영 콘텐츠를 공유 및 협력하며,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활



16일 전주시 옛 일양병원 자리에 문을 연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공간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의장 등이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주 이용대상인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 11월부터는 '찾아가는 창업 동아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창업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시 보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는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 외에 창업사업, 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운영인력 4명과 탄소융·복합재, 전자응용, 3D 전문장비를 운영하는 장비전문가 4명을 채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설계와 제품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해 전문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 메이커스페이스에는 총 41종 69대의 전문장비를 새롭게 구축 및 비치했으며, 이 외에 필요한 장비는 도내 36개 연구기관의 1,318종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마련하고 있다.

전문형 '뚝딱365'는 전북대학교 인근

전주종합경기장 건너편(舊, 일양병원 자리)에 8층 규모로 조성됐다.

한편 16일 개소식에 앞서 지난 9월부터 16일까지 총 5회의 메이커 교육(레이저조각기 활용, UV프린터 활용, 탄소 섬유 성형 기본, 아두이노 코딩)이 진행됐다.

'뚝딱365' 전문형은 제조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전문장비가 구비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콘텐츠 공유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메이커를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이다.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78억 예산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전문메이커 300명 육성, 메이커 창업 30개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전문메이커 육성과 창업 인프라를 네트워크해 메이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전북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비날카터기, UV프린터, 레이저조각기 등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과 탄소융·복합, 전기전자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메이커 육성 프

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런 홍보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를 같이 진행한다.

아울러, 2021년에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계획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공고와 접수는 뚝딱365 홈페이지(www.mkcr365.kr), 전북도청을 포함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전북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가 도내 제조업과 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도 한명 한명의 메이커가 전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 유관기관이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 건물 3층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가 지난 14일부터 이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종합안내(콜센터, ☎588-0700)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북메이커스페이스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기로 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는 16일 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와 함께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아파트 투기 꼼작마"

### 전주시·경찰, 가격 급등지역 연중 합동 조사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 지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좌절하는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됐는지 꼼꼼히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보안원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한 다음날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

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하루이전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후 구도심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즉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함께 365일 전주 지역을 합동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신고할 부당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365일 전 지역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부동산 전매행위 수사팀 총 2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전매제한 기뢰조사를 벌여 총 224명을 검찰에 송치시켰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텨온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전라북도의회